

“혁신의 시간 3년, 이젠 지역발전 에너지로”

“지난 3년간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왔습니다. 알찬 대학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거점국립대학 간 협력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김동원 총장(전북대학교)은 17일 대학 내 뉴스센터 동행홀에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3년간 대학 혁신의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1년 대학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날 김 총장이 직접 프리젠티어로 나섰다. 자신감이 넘쳤다. 주제는 전북대학교의 혁신이었다. 교육과 인재양성, 연구와 산학협력 등 분야에서 추진해왔던 혁신사례와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전북대 역할론도 빠지지 않았다. /편집자 주



“큰사람 키우고 연구성과 지역에 환원...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에 보람 느껴 RIS로 지역혁신 선도·국가거점국립대학간 협력 통해 균형발전 초석 놓을 것”

Q. 임기의 4분의3을 지나셨습니다. 김희가 새 로울 텐데요?

A. 지나온 3년을 한 마디로 평가하자면 ‘혁신의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등 알찬 대학을 만들기 위해 고민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정성을 쏟았죠.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똬처 헤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Q. 대학운영, 어떤 점에 역점을 두셨는지요?

A.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큰사람을 키우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 마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은 임기, 초심 잃지 않고 대학발전을 위해 결연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으시다면?

A. 대학 30년 숙원이었던 약화대학을 유지한 일이나 거점 국립대 최고 수준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 일 등 모두가 다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 가지를 꼽으려면 취임 이후 3년 줄곧 한국표준협회 평가한 재학생 대학 만족도에서 거점 국립대 1위를 기록한 것을 들고 싶습니다. 한국표준협회는 KS마크를 인증해주는 기관으로, 그 평가에 대한 공신력이 매우 높아요. 그만큼 전북대의 교육 서비스가 타 대학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생들 만족도가 가장 높은 대학,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었습니까?

Q. QS나 THE 등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들 평가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A. 평가를 의식한 대학운영은 식사로 치면

편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자원이 투입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는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대학을 만드는 길이자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평가 결과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최근 실시된 QS 대학평가에서 우리대학은 아홉 개 국가 거점 국립대 중에서 2위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거점 국립대학 간 학사교류를 제안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이고,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A. 학사교류제는 거점 국립대들이 공유와 협력 시스템을 갖춰, 부산에 사는 전북대생이 전북대에서 수업을 듣는 제도입니다. 서울대 포함 10개 거점대학들이 합의해서 지난해부터 매 학기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고 추후 대학 간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대학들도 다양한 연합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 학사교류를 진행해 학생들의 상호 이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Q. 전북대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입니다. 지역 인재 양성, 소홀할 수 없는 과제죠.

A. 지역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입시전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0학년도까지 의·치·수의·간호대에서만 시행했던 지역인재 전형은 일반 학과에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도 4.5배 이상 늘렸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등급도 지속적으로 완화해 지역의 인재들이 전북대에 입학해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여기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전부터 증진프

로그래를 운영하고 있고, 우수학생 기숙형태인 HRC를 운영해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HRC는 올해 7개 이상의 경쟁력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Q. 융·복합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혁신이 있었는지요?

A.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문계열 간 교차 교양교육, 융합·연계 전공 개설, 사회수요 맞춤형 교과목 도입 등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실제로 인문사회계 학생뿐만 아니라 이공계도 고전명저를 읽도록 하고, 인문계 학생들도 코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공 분야에서는 학과별 세부 전공트랙을 마련, 대학원 진학 과정, 산업체 맞춤형 과정, 취업 실무형 교육 과정 등을 마련했습니다. 융합·연계 전공을 개설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했고, 전공진로설계 교과목을 운영해 교수가 학생들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셨습니까. 연구 경쟁력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요?

A. 핵심은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집중 지원이죠. 먼저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임용부터 정년 이후까지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연구생에 주기에 따라 우수 신입 교수는 ‘JBNU Yang Fellow’로, 부교수 및 승진 5년 내의 교수는 ‘JBNU Fellow’, 교수

승진 5년 이후부터 만 60세까지는 ‘JBNU Star Fellow’, 그리고 연구 원숙기에 접어든 우수 연구자에게는 정년 후에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석좌연구교수(JBNU Distinguished Research Professor)’로 지정해 연구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1명의 연구자가 지원 받았습니니다.

Q. 국립대 최초로 도입한 ‘학연교수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A. 2020년 11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학연교수제 운영 협약 이후 지난해 5월 양 기관 연구진을 학연교수로 임명했어요. 학연교수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책연구소와 대학 간 공동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을 겸임교수로 임용, 전북대 교수진들과 함께 융합연구와 인력양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현재 전북대 5명, KIST 5명의 연구진을 학연교수로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기능성 복합소재와 탄소 융합소재, 구조용 복합소재 등에 대한 공동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요. 지역 전략산업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와 우수 인력 육성도 기대됩니다.

Q. 대학원 육성에 크게 공을 들인 것으로 알아요.

A.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원이 살아야 합니다. 우수한 신입생들

이 많아야 하고, 학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죠. 이런 차원에서 대학원 행정실 인력을 대폭 확충해 지원 기능을 강화했으며,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 신입생 빈곤 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 교육과정도 석·박사 통합과정 도입 등 연구 집중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융·복합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원 충원율이 78%에서 88%로 높아졌어요.

Q. 대학이 지역발전의 플랫폼이 되어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A.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 주체들이 모여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대학 내의 융합공간이 플랫폼입니다. 현재 전북대는 국비 176억원, 전라북도과 전주시로부터 100억원 등 276억원을 들여 산학융합플라자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과 강소·중견 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혁신공간이 될 것입니다.

Q. 지자체와 대학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이른바 RIS사업에 도전할 계획이신가요?

A.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는 사업이에요. 현재 전북도와 지역대학, 지역 산업체들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일 협력주체들이 전북대에 모여 사업유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모읍니다. 이 사업은 5년간 총 214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에요. 전북대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4년제 대학 대부분이 참여하고, 전북도와 지역 산업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Q. 대한민국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A. 거점 국립대는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양구 감소와 수도권 몰림 현상으로 나타난 지역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론의 장에서 많은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특히 국립대학법 제정,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 확대, 국립대 학생 무상등록금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거점 국립대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을 차기 정부에 적극 제안할 계획입니다.

Q. 남은 임기,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이신지요?

A. 전북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 덕분에 전북대가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전북대의 혁신은 눈앞의 작은 이익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알찬 대학을 만들기 위한 혁신이었어요. 이제 이런 노력이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토대는 튼튼합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마지막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따뜻한 동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성 기자

